

중국의 벼멸구 발생 및 곤충연구 동향

엄기백

농업과학기술원

벼의 주요한 해충인 벼멸구의 발생을 발생이 심하였던 1998년의 한국과 중국의 유아등 채집수로 발생의 동시성을 비교하였으며, 벼멸구 이동예측 프로그램(Blayer)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류흐름도를 작성하고, 이동경로 및 비래근원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벼멸구는 5월 중순부터 채집되었으며, 주로 광둥성 북부, 호남성 남부 지역이었다. 장강 유역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남부지역과 같은 시기에 채집되어, 같은시기에 비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의 발생 피크는 분석기간중 시기가 지남에 따라 남부에서 북으로 이동되었다. 벼멸구의 채집량이 많은 지역은 주로 조도 재배지역이었다.

Blayer 예측치와 유아등 채집량은 7월 상순까지는 유사하였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Blayer 예측치가 낮거나 예측이 안되었다. Blayer 예측에서 한국에서 발생이 심하였던 해는 비래량이 많았으며, 발생이 적었던 해보다 회수도 2-3배 많았다. Blayer 예측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간은 23 - 51시간으로 평균 39시간이 소요되었다. 비래량이 많을 때는 기류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이며, 기류가 남부해안의 아래쪽을 지날 때는 비래량이 적었다. 전남 해남을 통과한 기류의 출발지는 주로 복건성 남부와 광둥성 동북부였으며, 1998년에는 특이하게 2일간 광서성 북부와 호남성 남부에서 출발한 것이 기록되었다.

2001년 중국곤충학회와 식물보호학회에 발표된 발표요지로 중국의 최근 곤충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